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1주년 평가

KIEP 북경사무소 (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2.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내 주요제도 변화
3.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시행 1주년 평가

주요 내용 ●●●

- 2013년 9월 29일 동아시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1주년을 맞이함.
 - 2014년 9월 15일 기준 신규등록기업은 약 12,266개로 양적 성장을 시현하였음.
 - 현재 12개 성(省), 시(市)가 자유무역구 설립을 신청하며 과열양상을 보임.
- 지난 1년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투자관리, 무역관리감독, 금융혁신, 관리감독 분야 4대 제도개혁이 진행됨.
 - 개방역량 강화를 위해 2차례에 걸쳐 네거티브리스트(负面清单)를 발표하여, 제한·금지 이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사전승인 없이 전면 허용하였음.
 - 통관시스템 간소화로 수출입 증가와 함께 통관시간을 단축시킴.
 - 51개 금융지원정책 및 자유무역(FT)계좌, 위안화 국제화, 투융자 외환업무 간소화, 금리 시장화, 외환관리제도 5개 분야 금융제도 및 관리감독 방식을 구축하여 기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함.
 - 사중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하고, 사회 신용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시행세칙 미비 및 금융개방의 더딘 진행속도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1.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 2013년 9월 29일 정식 출범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유무역구')는 상하이 외고교보세구, 외고교 보세물류원구, 양산 보세항구, 푸둥공항 종합보세구 등 네 개의 세관특수감독구역을 포함하며, 총면적은 28.78km²에 달함.

표 1.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주요 운영과정

일시	주요내용
2013	09.29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정식 출범
	09.30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자유입 특별관리조치 上海市政府公布了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3)> 발표
	10.29 (자유무역구 시행 1개월) 자본금 35억 위안 돌파
	12.02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关于金融支持中国上海) 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意见> 발표
	12.05 위안화 양방향 캐시풀링(人民币双向资金池) ¹⁾ 업무 실시
	12.28 전국 최초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콰징통(跨境通) 정식 개통
2014	01.29 자유무역구 세무지국 시범적 one-stop(一站式) 심사 실시
	03.25 9대 금융혁신사례 발표
	06.18 자유무역(FT) 계좌 개설
	06.28 국무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개방 31개 조항 승인
	07.01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자유입 특별관리조치 上海市政府公布了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4)> 발표
	07.08 자유무역구 내 세무신고 시 인터넷뱅킹 서비스 실시
	08.01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조례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条例> 실시
	08.13 해관총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해관관리감독혁신제도 확대운영 발표
	09.01 양산보세항구 섬-내륙 수직통로(区港直通) 운영 개시
	09.18 상하이 금거래소 상하이황금국제판(金交所国际版) 정식 실시
	09.28 국무원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 개방 확대와 관련된 행정법규 및 국무원 승인부서가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 잠정 조정 실시에 관한 결정 国务院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暂时调整实施有关行政法规和经国务院批准的部门规章规定的准入特别管理措施的决定> 발표

- 1) 캐시풀링이란 계열사 간 여유자금을 순환해 단기간 은행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위안화 양방향 캐시풀링은 글로벌 기업이 위안화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으로 은행은 캐시풀링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캐시풀링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유동자금관리에 도움을 줌(중국 일일 경제동향, 「외자은행의 위안화 캐시풀링(Cash Pooling) 서비스 실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가시화」, 2014.1.20, 주중대한민국대사관).

- 2014년 7월 25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자유무역구 관리 기본법인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조례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条例」>(이하 <조례>))가 통과되어 8월 1일 부터 정식 시행됨.
 - <조례>는 총 9장 5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시스템, 투자개방, 무역 간소화, 금융서비스, 세수관 리부터 종합관리감독, 법적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자유무역구추진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9월 15일 기준, 자유무역구 내 신규등록기업은 약 12,266개에 달하며, 그 중 중국기업은 10,589개, 외자기업은 1,677개임.
 - 신규등록기업의 자본금은 총 3,400억 위안을 기록, 자본금 1,000만 위안 이상 기업은 5,200개임.
 - 특히 외자기업은 전년대비 10배 가량 증가하여 전체기업의 13.7%를 차지하였으나 홍콩, 대만 등 중 화권지역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6% 미만임.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이후 12개 성(省), 시(市)에서 자유무역구 설립을 신청하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사천성도(四川成都), 안위합비(安徽合肥), 영하은천(宁夏银川), 요녕심양(辽宁沈阳) 지역은 자유무역구 설계를 시작하였음.
 - 천진 동장보세항구(东疆保税港区) 정책은 자유무역구과 유사함.
 - 광둥 자유무역구의 총체적 방안은 이미 금년 6월 말 2차례에 걸쳐 국가 부(部)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였음.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정보부 부장 쉬홍(徐洪)은 자유무역구를 기타 지역에도 설립하여, 지역별 특징 강화를 통한 차별화 경쟁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함.
 - 차기 자유무역구로는 천진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음.

2.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내 주요 제도 변화

- 지난 1년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 투자관리 △ 무역관리감독 △ 금융혁신 △ 관리감독 분야 4대 제도개혁이 실시됨(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주임 아이바오쥔(艾宝俊)).

가. 투자관리제도: 대외개방 역량 강화

■ 자유무역구 출범 직후 발표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유입 특별관리조치 上海市政府公布了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는 190개 관련조항을 포함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외상투자사업 관리방식은 내자기업과 기본적으로 일치함.

- 외상투자사업 관리방식의 전환(심사제→등록제)으로 평균 8일이 소요되던 사업자등록이 즉시 처리됨에 따라 외자기업 진출이 용이해짐.
- 그러나 선진국 대비 낮은 개방률로 인한 투자유입 미미, 관리 허술, 외자기업 불만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짐.

■ 2014년 7월 1일 발표된 2014년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한·금지조치 취소(14개), 제한 완화(19개) 등 관련조항이 139개로 축소되면서 26.8%의 조정률을 보였고, 개방률은 약 17.4% 향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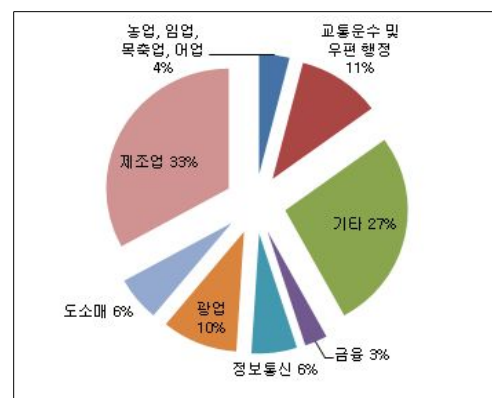
- 금지조치를 취소한 업종은 합성섬유, 펄프 제조, 화학제품, 희귀금속 제련, 야금설비 등임.
- 한편, 도박업, 유흥업 등에 대한 금지조치는 해제되었는데 그 실질적 원인은 기타 법률로 해당업종이 이미 금지되었기 때문임.
- 차(茶), 오토바이, 해양공정설비 및 항공전문설비 수리, 오토바이분사기술, 전력 열에너지 생산 공급, 자동차부품 제조, 호화여객선 방작 의류 및 피혁가공 전문설비 제조 등에 대한 투자제한 조건이 완화됨.
- 그 외 기업설립 시에만 적용되던 네거티브 리스트를 2014년부터 기업변경 시에도 적용되도록 조정하였음.

표 2. 2014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유형·산업별 분류

구분	유형	제한조치	110개 조항
		금지조치	29개 조항
	산업	1차 산업	6개 조항
		2차 산업	66개 (제조업 46개 포함)
		3차 산업	67개 조항

자료: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그림 1. 네거티브 리스트 분포



자료: 第一财经日报(2014. 9. 26), 「负面清单瘦身 自贸区企业扩权」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14년 9월 28일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개방 확대와 관련된 행정법규 및 국무원 승인부서가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 잠정 조정 실시에 관한 결정 国务院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暂时调整实施有关行政法规和经国务院批准的部门规章规定的准入特别管理措施的决定>(이하 <결정>)을 발표해 외국인투자를 독려함.

- <결정>에 따라 요트선박설계, 염전도매, 석유탐사 신기술 연구개발, 도시 인프라 설비, 항공운수 판매, 민간항공엔진제조, 촬영서비스 등에 외국인 독자진출이 가능해짐.
- 지난 6월 28일 국무원은 상무부,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구 확대 개방 31개 조항을 승인한 바 있음.

■ 네거티브 리스트 범위 축소 및 추가적 투자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자기업의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음.

-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2차 산업인 제조업, 수리(水利)공사, 공예, 공업, 건축업에 대한 제한 금지조치가 10개 조항 내외인 반면, 중국은 2차 산업에 대한 제한 금지조치가 66개에 달함.
- 인터넷상거래, 지도측량, 의료분과기구 설립의 투자를 제한하는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률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네거티브 리스트의 내용이 모호하고, 특히 21개 항목은 구체적 제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이 낮음.

■ 네거티브 리스트 외 구체적인 실시조례 부재와 제한된 공간으로 실제 기업이 투자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일부 신흥산업의 경우 상응하는 조항이 없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정부는 향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²⁾을 전국범위로 확대할 계획임.

- 향후 금융, 보험, 인재배양, 교육서비스 분야가 확대 개방될 것으로 기대됨(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2) 원칙적으로 수입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특수한 품목의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는 제도. 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 있음(『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교수 자오흥쥘(赵红军).

- 지난 9월 18일 열린 자유무역구 점검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세분화하여 실제적 정부책임 증가와 함께 이해도를 제고시킬 것을 당부하였음.
- 금년 말 중미BIT의 구조적 협상이 종결되고, 내년 초 네거티브 리스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 확산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 2013년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미BIT 협상의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지역별 네거티브 리스트가 외교관련 법률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표 3.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확산 현황

지역	현황
소주 공업단지 (苏州工业园区)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시(14년 1월)
성도(成都)	3개 시범지역(天府新区成都片区, 高新区, 龙泉驿区)은 각각 외상투자, 기업투자, 지역발전, 환경보호 분야를 포함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심천 첸하이 (深圳前海)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공포(14년 5월)
광둥성 불산시 (广东省佛山市)	외상투자 유입 네거티브 리스트 초고 작성

표 4. 美 BIT 표준문안-中 네거티브 리스트(2013) 비교

분류	내용	美 BIT 표준문안	中 네거티브 리스트
투자	투자정의	(광의적)8개 주요형식 (직·간접투자, 금융투자 등)	(협의적)외국투자
	투자과정	진입 전+진입 후 내국민 대우	진입 전 내국민 대우
기능	행위주체	협정 체결국가 정부	주최국 주동적 개방
	표현형식	국제조약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첨부문헌)	정부문건 (상하이시 인민정부 공고)
	기능	양자간 투자보호	외상투자산업 관리
	법적근거	협정 체결국가의 법률법규: 통상 국제법	국내 법률법규
내용	구체적 내용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투자 보장, 고급관리인 및 이사회	내국민 대우, 투자 제한, 고급관리인 및 이사회
범위	산업분류	모든 국민경제산업분야 포괄	18개 산업분야 한정 (사회기관 및 국제기구 불포함)
	적용범위	협정 체결국가 영토: 주권, 관할권 행사 가능 구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조정	조정가능 범위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조항 신설 및 심화를 제한함	연간 1회 네거티브 리스트 내용 조정 허용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2014. 9. 29), 「负面清单的秘密」.

- 상하이 재경대 자유무역구연구소 부원장 순위엔신(孙元欣)은 네거티브 리스트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첫째, 세계적으로 연방제 국가만이 전국·지방 범위의 네거티브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은 중앙집권적 정치체계를 지니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짐.
- 둘째, 지역별 제한목록 설정은 입법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법률적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중미 BIT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관리위원회 직권 투명도 제고를 위해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10월 말 권력리스트(权利清单)를 발표할 예정임.

- 권력 명칭, 법적 기준, 심사대상, 접수조건, 신청자료, 수속절차 등 10여개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나. 무역관리감독제도: 환경 최적화를 통한 효율 제고

■ 2014년 상반기 상하이해관은 확대운영이 가능한 집중종합과세(集中汇总纳税), 보세전시교역(保税展示交易), 선반입후신고(先入区后报关) 등 14개 제도³⁾를 소개하고, 동년 하반기 기업관리 방면의 5개 혁신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상기 제도는 통관 간소화 및 기업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목표로 함.
- 8월 13일 해관총서는 상기 14개 해관관리감독 혁신제도를 장강경제벨트 51개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8월 18일), 전국 해관관리감독구역(9월 3일), 해관특수관리감독 이외의 지구(9월 18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 2014년 1~8월 자유무역구 누적 수출입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815.1억 달러를 기록, 증가속도는 전국대비 8.7%포인트, 상하이시 대비 4.7%포인트 빠른 것으로 나타남.

- 동기간 기업 물류원가는 평균 10% 감소하였고, 수출입 통관시간은 3~4일 단축되었음.

3) 선반입후신고(先入区后报关), 자유무역구내 자체운송(区内自行运输), 가공무역단식심사(加工贸易工单式核销), 보세전시교역(保税展示交易), 국내외 수리(境内外维修), 선물보세결제(期货保税交割), 금융리스(融资租赁), 분기별 수출입집중신고(批次进出集中申报), 통관서류 간소화(简化通关作业随附单证), 등록명세서양식 통일(统一备案清单), 내수 선택적 세금징수(内销选择性征税), 집중종합과세(集中汇总纳税), 보세물류 온라인관리감독(保税物流联网监管), 통관검사 지능화관리(智能化卡扣验放管理).

■ 9월 22일 통과된 〈상하이시 대외문화무역 발전 가속화 실시에 관한 의견 上海市人民政府关于加快发展上海市对外文化贸易的实施意见〉(이하 〈의견〉)은 5개의 국가형 핵심기업 육성, 해외진출 전략 고수, 재정세무·금융정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의견〉은 상하이 대외문화 무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자유무역구 내 문화무역서비스플랫폼을 통해 144개 기업이 유입되었고, 그 자본금은 50억 위안, 무역규모는 71억 위안에 달함.

■ 향후 자유무역구 내 8대 국제거래 플랫폼을 건설할 예정임.

- 8월 27일 상하이시 정부는 “2개 혁신(무역제도, 무역방식)”, “2개 승급(무역주체, 무역 서비스)”, “2개 개선(시장체제, 무역투자환경)” 등 6개 분야, 35개 항목의 업무계획을 포함한 〈국제무역센터건설 2014~2015년 중점업무 안내 「国际贸易中心建设 2014~2015年重点工作安排」〉를 발표하였음.
- 자유무역구 내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목화, 액체화학제품, 은(銀), 대중상품(大宗商品),⁴⁾ 비철금속의 8대 국제거래 플랫폼을 건설하여 “플랫폼 경제”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금융혁신제도: 기업 활성화

■ 인민은행은 2013년 12월 2일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关于金融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意见〉(이하 〈의견〉)을 통해 투자여건 완화 방침을 밝힘.

- 〈의견〉은 자유무역구 내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투자자는 규제 없이 해외시장에 투자가 가능하며,⁵⁾ 외국인투자자 또한 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기구에 비주민개인 국내투자전용개좌를 개설하여 중국 내 주식시장 투자가 가능하다고⁶⁾ 명시함.

■ 지난 1년 간, 인민은행, 은감회(银监会), 증감회(证监会), 보감회(保监会)는 51개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하였고, FT 계좌, 위안화 국제화, 투융자 외환업무 간소화,⁷⁾ 금리시장화, 외환관리제도 5개

4) 농공업 생산 및 소비를 위해 대량 거래되는 제품으로, 에너지상품, 기초원자재, 농산물·농업생산재의 3가지 유형을 포함함.

5) 그동안 중국외환관리국은 외화환전 총액 상한선을 5만 달러로 제한해 많은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규제하였음.

6) 외국인투자자격자격증(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을 취득하지 않아도 A주 시장 투자가 가능해짐.

분야의 금융제도 및 관리감독 방식이 구축됨.

- 2014년 1~8월 자유무역구 내 위안화 국제 결제총액은 1,563억 위안으로 전체 상하이시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 동기간 국제 위안화 금융리스액은 174억 위안, 위안화 양방향 캐시플링 거래액은 272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국제 위안화 지불건수는 4.8만 건, 그 금액은 8.5억 위안임.
- 동기간 금융자산 총액 1,772억 위안, 대부잔고 675억 위안, 예금잔고 1,123억 위안을 기록, 상하이시 점유율은 각각 1.7%, 1.5%, 1.6%이며, 부실채권비율은 0.16%로 상하이시(0.97%) 대비 0.81%p 낮음.

■ 금융분야 개방 및 규제완화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 중이며, 대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로는 소액외화예금 금리 상한규제 폐지 및 FT 계좌 개설 등이 있음.

- 300만 달러 미만 소액외화예금 금리 자유화는 대출금리만 자유화되어 있는 기타 지역대비 외화예금 수요를 늘려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함.
- 동 조치는 3월 1일 자유무역구 내 실시 후 6월 27일 상하이시 전역으로 확대됨.
- FT 계좌 개설 이후 약 3개월 후인 9월 21일 기준, 10개 중국계 은행이 FT 계좌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4,110개 계좌를 개설하였음.
- 그러나 금리 자유화 가능 예금액 범위가 한정적일 뿐 아니라, FT 계좌 이용이 위안화로 제한되어 있어 외자기업의 적극적 진출 유도가 어려움.

■ 현재 자유무역구 내 별도계리업무(分账核算业务)⁸⁾를 통한 FT 계좌 관련 금융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추진 중임.

- 5월 중앙은행은 자유무역구 은행업무 별도계리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하이통증권(海通证券), 궈타이쥘안(国泰君安) 등 증권사 및 HSBC, Citi Bank 등 외자은행도 별도계리방식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
- 7) 다국적 투자 및 무역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해 투융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어떤 성격의 자본이든 자유롭게 필요한 국가의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자본항목 환전을 허용함으로써 위안화 자본계정 및 금융개방을 가속화함.
- 8) 은행은 독립적인 계정별 계리시스템을 구축하여 FT 계좌와 일반계좌를 분리해 정산관리를 실시함. 이를 위해 모든 FT 계좌는 상응하는 식별코드를 보유하고 있음.
- ① 국내기관 및 자유무역구 내 등록된 자영업자가 국내기관에 개설한 FT 계좌: FTE
 - ② 해외기관 FT 계좌: FTN
 - ③ 해외 금융기관의 동업기관: FTU

- 본위화폐를 우선 실시하고, 별도계리업무 세칙발표 6개월 후 자유무역구 별도계리방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적절한 시기에 외국화폐 업무를 시작, 최종적으로 국내외 화폐가 일체화된 FT 계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상하이시 금융서비스사무소 주임 정양(郑杨)).

■ 9월 18일 개장된 상하이황금국제판은 국내외 투자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래시스템 및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됨(상하이 금거래소 이사장 쉬러더(许罗德)).

- 금 거래 및 결제는 위안화로 이루어지며, 4거래일 간 거래된 금은 총 1,833kg, 45억 위안으로 국내외 42개 회원사가 참여하였음.
- 미국 뉴욕, 영국 런던 금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국제금가격지수를 독자적으로 발표하여 국제금시장 내 가격결정능력을 제고시킬 예정임.

■ 9월 28일 열린 자유무역구 1주년 기자회견에서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자유무역구 내 국제금융자산 거래 플랫폼, 중국금융현물거래소, 중국외환거래센터, 상하이계리소 등 국제금융 플랫폼 설립 및 국제적 금융업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라. 관리감독제도: 정부기능 전환 및 서비스 개선

■ 4월 30일 출범한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유무역구 내 신용정보, 신용파생상품 사용 등과 관련된 보조플랫폼이 설립됨.

- 동 플랫폼은 관련수치 집계·조회서비스 제공, 이의처리,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사전(事前) 신용보증, 사중(事中) 평가분류, 사후(事后) 연동 상벌제도의 신용관리방식을 시행함.

■ 개혁조치의 잇따른 출시, 특히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안으로 인한 투자개방 확대로 정부기능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사전심사제도에서 사중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⁹⁾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9) 외상투자 관리방식 전환(심사제 → 등록제)으로 외자기업 진입이 보다 용이해져 진입 이후 사중(事中) 평가분류, 사후(事后) 연동상벌제도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 자유무역구 내 안전심사, 반독점심사, 기업연보공시, 사회신용체계, 관리감독 정보 공유, 종합법령시행체계 등 6개 항목의 사중사후 관리감독제도가 실시 중임.
- 상기항목 외, “투자 활성화(宽进)”¹⁰⁾ 이후의 관리감독 및 후속관리 강화, 경제분야 관리체계 및 관리능력 현대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요구됨.

■ 9월 23일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공포한 자유무역구 1차 경영이상명단(经营异常名单)¹¹⁾에 따르면, 1,467개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그 중 대부분은 기업연보공시 항목을 이행하지 않음.

- 한편, 기업연보공시 실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허위보고 발견 시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할 예정임.

■ 실시간 신용데이터 교환시스템 부재, 개혁개방 후 신용·신탁시스템 발전 부진, 기업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본금 하한선 취소, 자본금 납부증명 수속 간소화 등으로 신용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높음.

3.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시행 1주년 평가

■ 리커창 총리의 요청에 따라, 상하이재경대, 상하이투자자문공사, PWC(Price Waterhouse Coopers), 3개 기관이 자유무역구 1주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원에 제출함.

- 이는 상하이시에서 국무원에 정식 제출한 최초의 평가보고서로 향후 자유무역구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 금년 상반기 상하이사회과학원, 상하이시 발개위가 각각 주관적 내부 평가보고서를 국무원에 제출한 바 있음.

-
- 10) 시장주체 진입조건, 등록서비스 방식,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통해 체제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함.
 - 11) 규정된 기한 내 기업연보 및 관련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사실은폐, 허위보고 또는 등록된 경영주소에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경영이상명단에 등재되고, ‘시장주체신용정보공시시스템(市场主体信用信息公示系统)’을 통해 외부에 공시됨.

■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3개 기관은 지난 1년간 추진된 제도혁신을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관련영역의 개혁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투자관리, 무역관리감독, 금융혁신, 관리감독 분야 4대 제도개혁을 통해 국제투자무역 통용 규칙을 견지하는 한편, 기본제도 틀 안에서 단계적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고 평가됨(상하이재경대 자유무역 구연구소 원장 자오샤오레이(赵晓雷)).
- PWC에 따르면, 무역간소화 조치로 자유무역구 내 기업은 사전에 재고를 창고에 저장하여 상품인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음.
- 정부행정관리시스템의 대대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방, 통관 간소화, 금융혁신 등 관련업무 추진이 기존 예상만큼 순조롭지 못함.
- 통관시간과 비용 면에서 자유무역구 내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은 국내 기타 종합보세구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됨.

■ 일부 중국내 전문가는 자유무역구가 개방 확대, 신규등록기업 및 수출입 실적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시현하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임.

- 지난 1년간 자유무역구 내 제조, 서비스 및 국가 경제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개방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상하이를 필두로 新개혁개방의 심화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함(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천펑잉(陈凤英)).
- 상하이사회과학원 원장 스량핑(石良平)은 자유무역구는 정부 관리체제 개혁, 투자무역 자유화 간소화 측면에서 선전했으므로 그 성과를 점수로 매긴다면 80점 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힘.

■ 그러나 구체적 시행세칙 미비 및 금융개방의 더딘 진행속도로 상당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1주년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

- 일부 행정수속의 간소화 및 부분적 투자개방 확대를 제외한 개혁·개방 속도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개혁 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WSJ 중국어판(华尔街日报中文网): 「上海自贸区一周年成果寥寥」, 2014.9.29).
- 9월 15일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부주임 다이하이보(戴海波)가 비리혐의로 면직됨에 따라 향후 발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됨.
-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개혁 속도에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자유무역구가 세계 금융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파이낸셜타임스 중국어판(FT中文网): 「投资者对上海自贸区头一年表示失望」, 2014.9.28).
- 대부분 외자기업이 개혁 강도가 약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중도포기 가능성이 존재함(참고

신식망(参考信息网): 「日媒: 上海自贸区一周岁有喜有忧」, 2014.9.28).

- 간병, 임대사업 등 수요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투자 수속이 여전히 복잡하기 때문에 외자기업 진출 부진함.
- JP모건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인 주하이빈(朱海濱)은 자유무역구 내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융시장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진전 속도를 제고하지 못하면 자칫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음(中金网): 「上海自贸区改革进程缓慢 对外商的吸引力寥寥无几」, 2014.9.15).
- 특히 중국 당국이 정부기능전환 및 외상투자 금지산업 리스트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스웨덴 SEB 상하이 지점장 프레드릭 하넬은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외국계은행 및 중개회사의 중국 내 자본시장 투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동 분야 개혁이 이루어져야 자유무역구 내 지점 설립을 고려할 것이라 밝힘(WSJ 중국어판(华尔街日报中文网): 「上海自贸区一周年成果寥寥」, 2014.9.29).
- 영국 브루넬대학 경제학교수 리우샤오지아(刘芎佳)는 자유무역구 금융 및 네트워크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BBC 중국어판(BBC 中文网): 「上海自贸区一周年:突破不多 教训难得」, 2014.9.30).
- 자유무역구 내 대외개방-리스크관리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향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오스트레일리아은행 중국지역 수석경제학자 류리강(刘利刚)).
- 상하이시 시장 양쑹(杨雄)은 기업의견 및 건의사항을 자유무역구 개혁 성과의 평가기준으로 삼아 서비기업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함(「上海自贸区推进工作领导小组会议」, 2014.9.28).

<참고자료>

- 「家版负面清单铺路BIT谈判」, 『第一财经日报』, (2014年7月9日)
- 「解码成都负面清单」, 『第一财经日报』, (2014年7月18日)
- 「自贸区法制化营商环境迈出关键一步」, 『中国经济时报』, (2014年8月1日)
- 「海关监管创新将全面开花」, 『国际商报』, (2014年8月18日)
- 「上海自贸区八大国际交易平台建立在即」, 『21世纪经济报道』, (2014年9月2日)
- 「上海自贸区改革进程缓慢 对外商的吸引力寥寥无几」, 『中金网』, (2014年9月15日)
- 「继续推进金融改革创新和扩大对外开放」, 『金融时报』, (2014年9月20日)
- 「上海文化贸易蓄势待发」, 『国际商报』, (2014年9月26日)
- 「负面清单瘦身 自贸区企业扩权」, 『第一财经日报』, (2014年9月26日)
- 「投资者对上海自贸区头一年表示失望」, 『FT中文网』, (2014年9月28日)
- 「日媒: 上海自贸区一周岁有喜有忧」, 『参考信息网』, (2014年9月28日)
- 「负面清单的秘密」, 『21世纪经济报道』, (2014年9月29日)

- 「杨雄：争取更多创新举措在自贸区启动实验」. 『第一财经日报』. (2014年9月29日)
- 「聚焦上海自贸区挂牌周年」. 『经济日报』. (2014年9月29日)
- 「上海自贸区一周年成果寥寥」. 『华尔街日报中文网』. (2014年9月29日)
- 「上海自贸区一周年:突破不多 教训难得」. 『BBC中文网』. (2014年9月30日)
-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资管理制度变革问题与突破」. 『国际贸易』. (2014年 第8期)

자료 정리: 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 조지현 (jihyun2828@hanmail.net)